

광주 서수연 해냈다...장애인AG 탁구 '금빛 스매싱'

여자단식 중국 류징 3-1 제압
경련 이겨내고 개인 첫 금메달
복식·혼복 남아 "3관왕 도전"



서수연(스포츠등급 Class2·광주장애인체육회)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인계임 탁구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서수연은 25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인계임 탁구 여자 단식 클래스1·2 결승에서 중국의 류징을 3-1(11-4 11-7 9-11 11-6)로 꺾고 우승했다.

장애인아시아인계임에서 따낸 개인 첫 금메달이다.

서수연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개인·단체 은메달, 2018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개인·단체 동메달을 따냈고, 2020 도쿄 패럴림픽과 2016 리우 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서도 단식 은메달을 수확했다.

항저우에서는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수연은 예선과 준결승 3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1세트를 따낸 서수연은 2세트 9-7에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지만, 연속 2점을 뽑아 내며 고비를 넘겼다.

3세트는 내렸지만, 4세트에서 긴 팔을 활용한 특유의 스윙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수연(스포츠등급 Class2·광주장애인체육회)이 25일 중국 항저우 궁수 캐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장애인아시아인계임 탁구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수연은 "경련이 잦은 편인데, 테이블이 낮아 다리가 부딪히면서 2세트 때 경련이 왔다"며 "그 포인트가 중요했기 때문에 템포를 쉬어가면서 다리가 진정할 때까지 생각을 기다렸고, 경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복기했다.

그는 "앞선 장애인아시아인계임에서 계속 금메달을 놓치다가 이번에 따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서수연은 26일 여자 복식, 혼성 복식에서도 우승에 도전한다.

서수연은 "복식이 남았다. 장애인아시아인계임에서 한국 탁구 선수가 3관왕에 오른 적이 없는데 최초로 달성해 보겠다"라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K리그 최저 연봉 2400만→2700만원 인상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심의 의결
출전명단 최대인원 18명→20명

K리그 선수 최저 연봉이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4일 2023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최저연봉 인상 ▲출전선수명단 인원 증원 ▲원정응원석 관람편의 차별금지 ▲승강플레이오프 대회요강 확정 ▲김포FC의 승강플레이오프 진출 자격 인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K리그 최저 연봉이 270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2020년 최저 연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 지 4년만이다. 연맹은 저연봉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불가상승 추세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리그1의 출전선수명단 최대인원도 기존 18명에서 내년 20명으로 늘어난다.

인원 변화에 따라 대기 선수 수도 기존 최대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한다. 운영비 증가를 고려해 K리그2의 출전선수명단 최대인원은 기존대로 18명으로 유지한다.

원정팬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원정응원석 차별금지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규정에 따라 좌석 여유가 있음에도 원정팀 관중을 좁은 구역에 과밀 수용하거나 원정 응원석을 관전 시야가 나쁜 곳으로 배치하는 게 금지된다. 또 같은 조건의 다른 좌석보다 원정응원석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2023시즌 승강플레이오프

일정도 확정했다.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승강PO1),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승강PO2)간 맞대결은 12월 6일과 9일 진행된다. 1차전은 K리그2팀 홈 구장에서 치러지며, 2차전은 K리그1팀의 홈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킥오프 시간은 추후 결정된다.

외국인선수는 국적무관 3명 및 아시아쿼터 1명까지 출전선수명단에 등록·투입할 수 있다. 연장전이 진행될 경우 교체인원수 1명과 교체횟수 1회가 늘어난다.

이사회는 '2년 차' 김포FC의 승강플레이오프 진출 자격도 인정했다. 단 현재 5000여석인 김포FC의 홈 구장 솔터축구경기장의 관중석을 내년 4월까지 K리그1 최소기준인 1만석 이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김포시는 연맹에 내년 4월까지 K리그1 경기장 관중석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관중석 증축 계획을 제출했다.

이사회는 또 외국 클럽으로 임대할 수 있는 23세 이상 선수의 최대 인원을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게 기존 8명에서 7명, 2024년 7월부터는 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정응원팬의 난동이나 이물질 투척 등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구단과의 경기시 원정응원석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구단이나 선수가 부정행위를 위한 교육, 면담, 서약서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구단 소속 의무트레이너의 자격 조건도 추가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스포츠의학 관련 학부 졸업 후 1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아시아퍼시픽 아마골프 10년만에 우승 도전

호주 멜버른에서 오늘 개막
안성현·문동현 등 7명 출전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제14회 아시아 퍼시픽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이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흘간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로 우승자에게는 다음 해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준다.

올해 대회는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며 37개 나라 120명의 선수가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이 가운데 한국 선수는 7명이 출전한다.

국가대표 안성현, 문동현, 이성호, 김현욱과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이병호, 송태훈, 박지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마추어 최고수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례는 1회 대회인 2009년 한창원과 2013년 이창우, 두 번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021년 마스터스 챔피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이 대회 정상을 올랐다.

2009년생 안성현은 지난해 4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최연소 컷 통과(12세 11개월) 기록을 세웠다.

또 문동현은 대만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블루원배 등에서 우승했고, 이성호는 말레이시아 아마추어오픈 등에서 정상을 오른 실력파다.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14회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이 개막한다. 대회에 출전하는 이성호(왼쪽부터), 안성현, 김현욱. <대회 조직위 제공>

김현욱은 지난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허정구배 한국 아마추어선수권 우승자다.

키 195cm 장신 이병호는 2020년 미국 텍사스주 올해의 주니어 선수에 뽑혔고, 올해 8월 KPGA 코리아 투어 대회에 초청 선수로 나와 출전권을 기록했다. 이성환 세마스포츠마케팅 대표의 아들이다.

송태훈은 미국 텍사스대, 박지원은 미국 버클리대 골프팀 소속으로 이번 대회 정상을 노린다. 세계 아마추어골프 랭킹으로는 송태훈의 232위

가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다.

15위 스키우라 유타(일본), 17위 당원이(중국), 30위 가즈마 고보리(뉴질랜드) 등이 높은 순위에 있는 이번 대회 출전 선수들이다.

대회장인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은 바람이 강하고, 페어웨이나 그린도 딱딱한 편이라 선수들의 체감 난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26일부터 1라운드를 시작한다. 2라운드 공동 60위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들이 3라운드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7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조정 종목에 참가한 장애학생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성료

40여개 학교 450여명 참가

제7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24일 광주 빛고을체육관 등 종목별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에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의 체육 참여를 도모해 건강과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우수 학생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시 40여개의 학교에서 450여명의 학생 및 관계자가 참가했다. 대회는 6개의 경기종목과 9개의 체험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은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

센터 등 3개 경기장에서 열렸고, 보치아는 오는 27일 광주은혜학교에서 진행된다.

특히 빛고을체육관에는 레이저사격, 전자술런 등 뉴스포츠 9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마련돼 참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의 경기 내용을 살펴 내년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시 대표 선수 선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교육청·체육회·학교 간 업무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대회 개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10.25 개봉
살어떻게 살 것인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수
- 2관 용감한 시민
- 3관 엑소시스트: 믿는 자, 더 먼 2
- 4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5관 30일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9관 용감한 시민, 시수,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황금 달걀 구조대
- 7관 싸네가들 30일, 유엔미앤미
- 8관 싸네가들 유엔미앤미, 화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3-10-01(일)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일시 : 2023-11-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